

3. 사회문화

□ 민족 구성

- 러시아인 79.8%, 타타르인 3.8%, 우크라이나인 2%, 바슈키르인 1.2%, 추바슈인 1.1%, 기타 민족 12.1%로 구성되는 등 100여 민족이 집합한 다민족국가임.

□ 언어

- 공식 언어는 러시아어나 기타 언어와 방언이 140여개가 존재하며 정부는 개별 자치 공화국에게 소수언어를 공용어로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러시아어는 유라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넓은 범위에 걸쳐 사용되는 언어이자 가장 널리 쓰이는 슬라브 언어로, 인도유럽어 계열에 속하며 오늘날까지 쓰이는 동슬라브어 중 하나임.
- 세계 과학 문헌의 1/4 이상은 러시아어로 쓰이며 세계 정보의 60 ~ 70%는 영어와 러시아어로 출간되는 등 세계 전역에서 활용되는 유엔 공식 언어 중 하나임.

□ 종교

- 8,000만명의 러시아인이 러시아 정교(그리스 정교 분파)를 믿으나 이슬람교, 천주교, 유대교, 불교 등도 존재함.
- 러시아는 70년간 지속되었던 소비에트 체제가 교회를 박해

하고 종교적 건물들을 철거하는 등 무신론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로 스스로 신자를 자처하지만 종교적 행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

- 국가는 특정 종교에 대한 보호를 취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종교 기념일은 러시아 정교와 연관되어 있으며 러시아 정교를 제외한 기타 종교는 무시 받거나 기피의 대상임.

□ 한국 문화 유입 정도

- 일제 당시 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가거나 일제의 압박을 피해 러시아로 넘어가 뿌리를 내린 고려인은 러시아 정계에 진출하거나 뛰어난 사업 수완 등으로 이름을 알리며 러시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짐.
- 한국브랜드는 러시아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을 품질 좋고 적당한 가격의 제품으로 인식, 특히 한국 가전제품, 자동차,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 그러나 한국에 대해 러시아 대중매체가 소개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며 대중을 위한 한국학 분야 서적도 전무함.
- 특히 북한과 관련하여 미사일 - 핵문제 등 외교적 문제와 관련하여 긴장감이 유지되는 것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떨어트리는 요인임.
- 재외동포재단에 등록된 러시아 한글학교의 수는 380여개, 한국(고려인)문화센터는 35개에 달하며 국제교류재단은 총 22개 러시아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다고 밝힘.
- 모스크바 시내에 위치한 한인식당의 수는 15개 정도로 현지인들도 즐겨서 찾는 고급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구축함.

- 2010년에는 한-러 20주년 수교를 맞이하여 세계 3대 박물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에서 ‘술숲에 부는 바람, 한국미술 오천년’ 특별전이,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이상봉 패션쇼, 디지털 산수화 전시 등이 열리는 다양한 문화축제가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음.
- 2011년에 러시아에서 K-Pop 열풍이 빠르게 번지고 있음
-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K-Pop을 즐기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음악 전문 TV 채널이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음악을 방영해 달라는 팬들의 요청으로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을 직접 찾아와 음원 계약과 상업 공연을 주최.
-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K-Pop Cover Dance Festival을 개최함.